
방통위 캐나다-미국 공무국외출장 결과

- 혁신성장 및 방송통신 규제 관련 산업현장 방문 -

◆ 기 간 : 2018. 6. 17.(일) ~ 6. 23.(토), 5박 7일

◆ 방문국가 : 캐나다 (밴쿠버), 미국 (실리콘밸리)

2018. 7.



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I . 출장 개요	1
-----------------	---

II . 세부 활동	2
------------------	---

1. CKC 참가 및 차세대 프로그램 축사	?
-------------------------------	---

2. Amazon 밴쿠버 지사 방문	?
---------------------------	---

3. 한-캐 방송통신 좌담회	?
-----------------------	---

4. Kabam 본사 방문	?
----------------------	---

5. 실리콘밸리 무역관(KOTRA) 방문	?
------------------------------	---

6. 실리콘밸리 한국혁신센터(KIC) 방문	?
-------------------------------	---

7. 실리콘밸리 K-Group 간담회	?
----------------------------	---

8. 삼성리서치아메리카(SRA) 방문	?
----------------------------	---

III . 보도자료	38
------------------	----

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문재인정부 2년차를 맞아 혁신성장의 가시화를 위한 정책추진이 본격화 되는 시점에 미디어 및 ICT 분야의 신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효과적인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

2. 출장 국가 : 캐나다 (밴쿠버), 미국 (실리콘밸리)

3. 출장 기간 : '18년 6월 18일(일) ~ 6월 23일(토), 5박 7일

4. 출 장 자

구분	부 서	직 위(직 급)	성 명
1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고 삼 석
2	방송지원정책과	과장	신 영 규
3	운영지원과	비서관	이 기 훈

※ 한국인터넷진흥원 문유진 주임연구원 동행

5. 주요 활동

- (CKC 2018 행사 참석)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차세대 프로그램 (Young Generation Program) 등에 참석하여 현지에서 유학중인 차세대 인재들을 격려
- (혁신성장 관련 산업현장 방문)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서비스 및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규제혁신과 미디어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

6. 선물수령 관련

- 선물 수령 여부 : X

II. 세부 활동

1. CKC 참가 및 차세대 프로그램 축하

□ 개 요

- 일 시 : '18. 6. 18.(월) 09:00~14:00
- 장 소 : Richmond Conference Centre (밴쿠버)

< CKC 2018 행사 개요 >

- 행사명 : CKC (Canada-Korea Conference on Science & Technology) 2018
- 주 관 : 캐나다 한인과학자 협회 (AKCSE),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 기간/장소 : 6.17(일)~6.20(수) / Richmond Conference Center (밴쿠버)
- 규 모 : 한국과 캐나다의 과학기술계 인사와 정부관계자 500여명
- 행사내용 : 한국-캐나다 간 과학기술분야 최대 학술교류 행사로 금년에는 개최 도시인 밴쿠버의 특성을 살려 '제4차 산업혁명'을 메인 주제로 선정
- 등 록 : 한국과 캐나다의 과학기술계 인사와 정부관계자 500여명
- 주 제 : "Ingenuit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주요 프로그램
 - 차세대 프로그램 : 캐나다 대학의 과학기술 및 방송통신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젊고 진취적인 청년 과학자들을 위한 행사로서, 과학기술 및 ICT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차세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 한국-캐나다 방송통신 좌담회 : 한국-캐나다의 차세대 방송통신 정책 및 현황 공유를 통해 미래기술 점검 및 협력 분야 발굴
 - 한국-캐나다 국가과학기술혁신협력 전략포럼 : 양국 과학기술혁신 핵심전략분야 육성을 위해 정부 및 산학연 간 협의 프로그램
 - 브리티시 콜롬비아(BC)주-정부출연연구원 R&D 브레인스토밍 포럼 : BC주 주정부 및 산학연 기관과 한국 정부출연연구원이 모여 공동연구, 기술협력 프로그램개발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포럼
 - 한국-캐나다 대학박람회 : 양국 대학의 학생, 동문, 교수들이 참가하여 학교 및 전공소개, 입학안내, 산학협력,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 행사 참석 사진자료 >



< CKC 행사장 >



< CKC 개회식 1 >



< CKC 개회식 2 >



< CKC 개회식 3 >



< 차세대 프로그램 1 >



< 차세대 프로그램 2 >

□ 차세대 프로그램 축사

-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은 ICT 차원에서 모두 연결이 되며, 산업진흥과 규제완화의 이슈가 있음
- 방통위는 캐나다로 말하면 CRTC, 미국의 FCC 같은 기관이며, 방송과 통신 및 인터넷 분야의 규제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 빅데이터, IoT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대단히 중요한데, 온라인 분야의 개인정보보호를 한국에서는 방통위가 전담하고 있음
 - 또한 요즘 위치기반서비스 관련하여 방통위가 사업자 허가, 신고 업무를 맡고 있음
-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음
 -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촛불혁명을 통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실제로 외국에 나가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화롭게 촛불집회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음
 - 또한 지난달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역사상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큰 관심을 받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음
 - 그리고 2월에 있었던 평창동계올림픽을 아주 성공적이면서도 감동적으로 끝마쳤음
 -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어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낌
-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딱 1년이 지났고 이제 2년차인데, 최근의 화두는 아무래도 경제 분야에 맞춰져 있음

- 문재인정부는 세 가지의 경제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이 바로 그것임
- 혁신성장은 신산업창출 및 일자리창출로 연결이 되는데,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o 많은 분들이 과학기술 개발과 ICT 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규제 합리화라고 할 수 있음
 - 개인적으로 과학기술과 ICT와의 융합, 규제합리화, 규제혁신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o 혁신성장을 위해서 문재인정부에서는 과학기술분야에 심혈을 기울여서 정책을 펴고 있음
 - 문재인정부에서는 신생 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이나 기초연구와 관련해서 금년 1조 4,200억원의 예산을 2022년까지 2조 5,000억원으로 증액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 또한 과학기술을 ICT 관련 산업과 융합시켜 혁신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음
 -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빅데이터, 스마트카, 자율주행차 등 10대 과제를 선정해서 과학기술이 기초연구에 충실하면서 국가의 경제발전, 국민안전까지 이어지도록 정책을 골고루 펼치고 있음
- o 캐나다는 정부의 지원, 우수한 대학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과학기술 선진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생물학, 화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도 10여명 배출한 과학기술의 선진국임
 - 여러분들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며, 다른 한편으로 국내에서 과학기술인에 대한 우대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음

- 여러분들이 어는 곳에 있던지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재이고 우리나라와 세계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인 것은 분명함
 - 저희 바램은 여러분이 외국 나가서 잘 배운 후 국내에 와서 고국을 잘 이끌어 주시면 좋겠지만, 어디에 있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잊지 말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여 조국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재능을 사용해주기 바램
-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잘 성취하기를 바라겠음

2. Amazon 밴쿠버 지사 방문

□ 개 요

- 일 시 : '18. 6. 18.(월) 15:00~16:00
- 장 소 : Amazon 밴쿠버 지사 (밴쿠버)
- 면담자 : 윤OO 박사

< Amzaon 밴쿠버 지사 현황 >

□ 개 요

- 아마존 밴쿠버 지사는 2013년에 설립, 1천여명의 직원이 전자상거래, AWS (Amazon Web Services, 아마존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서비스), 인적자원기술 관련 분야 사업을 담당함
- 2022년, 38,000 평방미터 규모의 새 사옥을 건축할 예정이며 3천명 이상을 새로이 고용하여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컴퓨팅, 머신러닝 분야의 업무를 할 예정임

【 지사정보 】

구 분	내 용
설립년도	2013년
주소지	510 W Georgia St, Vancouver, BC V6B 0M3, Canada
직원수	1000명 이상
사업영역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서비스, 인적자원기술

※ (참고) 아마존 개요

- 아마존닷컴 주식회사(Amazon.com, Inc.)는 미국의 워싱턴 주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 전자 상거래 기업이며,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 중개 기업임
- 1994년 7월, 제프 베조스가 설립, 아마존닷컴은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하였지만 DVD, 음악 CD, MP3,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자책 단말기 킨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다양한 제품군 구성

< 방문 사진자료 >



< 회의 1 >



< 회의 2 >



< 기념촬영 >

□ 주요 논의내용

【 캐나다의 개발자 우대 문화 】

o (윤박사)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음

- 미국에서 이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을 어떻게 공부하였느냐, 차라리 의대에 진학하지 그랬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이곳에서는 엔지니어를 우대하는 분위기가 존재

o (고삼석 위원) 국내에서는 여전히 인재가 공무원, 공사 등 공공분야에 집중되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취업보다는 진학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있음

- 정부 차원에서 '선취업 후진학'과 창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등 변화를 위해 노력 중임

【 아마존 밴쿠버 지사의 역할 】

- o (윤박사) 미국 시애틀 본사에서 하지 못하는 여러 일들과, 본사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보충하는 일을 함
- 캐나다는 인공지능 분야 세계적인 석학인 요수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 제프리 힌튼 토론토대 명예교수를 중심으로 풍부한 인재 풀과 정부의 과격적인 연구 지원 덕분에 인공지능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AI 전진기지로 촉망을 받고 있음

【 근무 환경 】

- o (윤박사) 아마존에서는 9시부터 6시까지 정해진 시간동안 근무하는 문화가 아니며, 미팅이 있을 때도 굳이 회사에 출근할 필요는 없음
-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는 직원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할 수 있도록 영상회의, 클라우드 기반 업무처리 등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임
-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도 코딩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안서의 URL을 공유하고, 이를 서로 읽어보고, 피드백 해주는 역량이 필요함
- 하지만 집에서 일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실제 근무시간은 '9 to 6' 보다 더 많을 수도 있음

【 아마존의 경쟁력 】

- o (고삼석 위원) 애플은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지만 아마존은 제프 베조스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함

- (윤박사) 아마존이 알렉사라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판매하고 있지만 인공지능 분야에서 강점보다는 고객 강박적 (obsessive)이라 할 정도로 고객을 확보하고, 고객을 지향하는 문화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함
- (윤박사) 또한 아마존에는 고객을 위하는 일이라면 단기 손실을 보더라도 개발과 투자를 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음
 - 예컨대, 자체 제작한 파이어폰의 실패 경험도 존중할 정도로 반드시 성공을 요구하기 보다는 시도해 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함
- (윤박사) 아마존이 온라인 소매 서비스를 하다 보니 블랙프라이데이나 크리스마스나 같은 성수기의 거래량을 감당하는 설비를 구축해야만 했고, 평상 시에는 가동되지 않는 설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사업에 뛰어든 것인데 이제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고삼석 위원) 한국의 R&D 예산이 민간이 40조원, 정부가 20조원으로 총 60조원이나 되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예산이 투입되는 곳에서는 성과를 내야 함
- (고삼석 위원) 한국도 정부와 기업 모두 R&D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 있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함
 - 당장 내가 아니더라도 내 다음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면 터를 닦아주는 사회 분위기와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3. 한국-캐나다 방송통신 좌담회

□ 개 요

- 일 시 : '18. 6. 19.(화) 10:40~12:20
- 장 소 : Richmond Conference Centre (밴쿠버)
- 면담자 : 장갑수 AKCSE 회장, 김정우 켈거리대 교수 (AKCSE 차기 회장), 고석범 사스카체완대 교수, 김근수 캐나다국가연구회 박사, 김민 텔러스 CTO, 김범수 캐나다국방연구소 박사, 김성환 켈거리대 교수, 레지나 리 교수, 최강일 교수

< 좌담회 사진자료 >



< 발표 장면 1 >



< 발표 장면 2 >



< 논의 장면 >



< 기념촬영 >

□ 주요 논의내용

- (김민 CTO) 캐나다의 브로드밴드 속도는 한국에 비해 1~2년 늦고, 아직 모뎀을 사용하는 이용자도 있음
 - 이동통신 회사는 벨, 로저스, 텔러스 3개사가 있으며, 캐나다 전역에 네트워크 투자를 하고 있음
 - 케이블 회사는 샤, 로저스가 네트워크 투자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사를 인수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음.
 - 캐나다에서는 하드웨어 기업이 소프트웨어 또는 콘텐츠 사업을 시도했다가 망한 경우가 많으며, 반대로 소프트웨어 기업이 하드웨어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는 있음
 - IPTV는 상승하는 추세이고, 케이블은 하락하는 추세임
 - 한국의 경우 안테나 1개가 1,000명을 커버하는데 캐나다는 인구밀도가 낮아 100명 밖에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통신요금이 높고, 네트워크 투자 비용도 많이 들어감
 - 캐나다도 VoIP가 증가하고, 집 유선통화는 감소하는 추세임
- (김민 CTO) 최근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OTT를 협력자로 볼 것인지, 경쟁자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 텔러스는 넷플릭스를 협력자로 보고, IPTV 내에 넷플릭스 서비스를 탑재함
- (김민 CTO) 텔러스의 골은 디지털 서비스 프로바이더 (DSP)가 되는 것임
 - 텔러스의 직원은 46,000명이며, 이 중 2,000명은 국제적인 민원 상담을 하는 직원들임

- 캐나다 통신시장은 로저스가 33%, 텔러스가 28%, 벨이 2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체 4~5조원의 시장 규모를 예상
- o (고삼석 위원) 한국에서도 넷플릭스와 관련하여 캐나다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
 - 한국에서는 현재 넷플릭스를 케이블 또는 IPTV의 서비스 중 하나로 보고 있음
- o (고삼석 위원) 한국의 IPTV, 케이블은 종합 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추구하고 있는데, GAFA 기업에 비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고민임
 - 특히 문재인정부 2년차를 맞아 3가지 경제의 축이라 할 수 있는 소득주도·일자리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과 관련하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음
- o (고삼석 위원) 새로운 기술, 스타트업에 대하여 이들 서비스의 상용화 전단계까지의 규제가 중요한 이슈가 아닌지?
- o (김민 CTO) 기본적으로 한국처럼 규제가 많지는 않으며, 망에 연결된 부가 사업자에 대하여 동등접근을 허용하고 있음
 - 앞서 말씀드린 3개의 통신사가 시장을 나눠서 점유하고 있는데, 통신사를 4개, 5개로 늘릴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사업에 실패하고 합병되어 버렸음
 - 소비자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하여 단말기 약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였으나 오히려 아이들이 휴대폰을 2년만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어른들이 그 폰을 물려받아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
- o (신영규 과장) 미국은 망중립성을 폐지했는데 캐나다는 어떤 상황인지?

- o (김민 CTO) 텔러스는 인터넷 기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망중립성 찬성하는 입장임
- o (고삼석 위원) 한국에서는 안드로이드 기기가 전체 모바일 트래픽의 89%를 차지하며, 넷플릭스가 LG U+와 협상을 하면서 망이용료는 지불하지 않고 콘텐츠 수익은 90%를 요구했다는 소문 때문에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해외기업에게 지배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
- o (고삼석 위원)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전략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정부 차원의 준비와 지원이 있는지?
- o (최강일 교수) 무인자동차는 테스트에 대한 허가를 정부가 규제하고 있으며 민간 또는 대학교가 개발하는 기술에 대하여 사회적 파급 효과와 영향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 정부가 참여함
 - 원칙적인 (background) 지적재산권 (IP)은 개발자가 갖고 개발자를 지원하는 기관은 지적재산권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co-ground IP)
 - 안전에 대한 규제는 커뮤니티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심한 편임
- o (김범수 교수) 한국에서는 모든 R&D를 4차 산업혁명과 연결하는 분위기이며 정부가 주도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분위기임
 - 반면 캐나다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 어떻게 보면 늦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임
 - 한국에서는 제어하는 방식만 스마트하게 변경해도 4차 산업혁명

관련 서비스라고 이야기 하는 반면, 캐나다에서는 주제도 크고 러프하게 설정하고 이 주제 안에서 AI, IoT 등과 관련하여 바로 일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 (정부지원 포함)하는 방식임

- o (고삼석 위원) 한국은 다양한 언론이 있고 최근 개최하는 포럼은 대부분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봄을 일으키기 위해서 언론에서 독려하는 분위기도 있음
- o (고삼석 위원)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되는지?
 - 학부 3학년 학생 정도만 되면 취업 제안을 받고 있고 보안, AI,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학부 때부터 많이 함
- o (김범수 박사) AI, 빅데이터 전공을 했는데 벤지오, 힌튼 교수가 이 분야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10년 동안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유연한 펀딩을 받으면서 연구에 집중하고, 심리학 전공자들과 융합 연구도 했기 때문임
 -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좋지만 시장도 보고 기술도 보면서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
 - 당장 현재 각광받는 기술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지원하고 뜨더라도 꾸준히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으로 은행업에서도 이 분야 교수를 스카우트하기도 함
- o (김정우 교수) 과별로 학생 수 정원이 없으며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인데 학생들이 일자리의 수요를 더 잘 알고 있음
- o (김민 CTO) 경영학 전공을 선택한 대학생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복수전공하는가 하면, 회사에서도 직원들이 벤처를 만들어 창업하는 분위기가 강함

- 전통적인 통신회사는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벤처나 핀테크 기업등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양하게 진출하는 것을 선호함
- o (고삼석 위원) 인재 유출이 많이 이뤄지는지?
- o (김정우 교수) 시애틀로는 많이 가기도 하는데 NAFTA 협정에 의한 TN 비자를 받고 미국 변호사가 서류에 간단한 서명만 받으면 미국으로는 쉽게 갈 수 있음
- o (고삼석 위원) 한국에서도 선취업 후진학 장려를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 중이며, 창업 교육도 강조하는 등 교육 시스템에 변화를 꾀하고 있음
- o (김성환 교수) 불황 등으로 여건이 좋지 않을 때 스타트업이 성장함. 최저 임금으로 일하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작지만 강한 기업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있음
- o (고석범 교수) 여기는 비정규직이 매우 많지만 이직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못 느끼고 있으며 젊은 인재를 육성하고 창의력을 배양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음
- o (김범수 박사) 방송쪽과 관련해서는 다문화를 많이 신경쓰고 있으며, 미국과 비교해서 캐나다의 다문화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이라 할 수 있음
 - 미국은 용광로처럼 다민족을 미국이라는 정체성으로 녹여낸다고 하면, 캐나다는 각 민족을 인정하고 그들의 언어로 된 채널을 다양하게 제공함
- o (고삼석 위원) 한국도 외국인 등록자가 100만명, 다문화 가족이 400만명, 노년층은 300만명에 이르고 있어 이들의 미디어 복지와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음

4. Kabam 본사 방문

□ 개 요

- 일 시 : '18. 6. 19.(화) 15:30~16:30
- 장 소 : Kabam 본사 (밴쿠버)
- 면담자 : Tim Filed CEO

< 방문 사진자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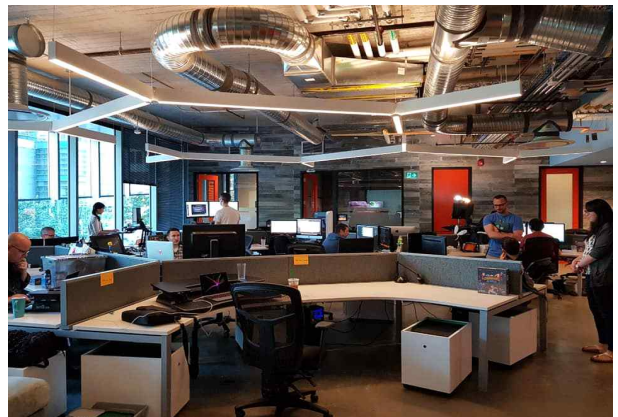
< Kabam 입구 기념촬영 >



< 팀 필드 CEO와 기념촬영 >



< 회사 소개 >



< 직원 사무실 >



< 직원 휴게용 침실 >



< 회의 장면 >

□ 주요 논의내용

- (고삼석 위원) 방통위는 방송, 통신, 인터넷 관련하여 규제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정부기관으로서 최근 IT·미디어·콘텐츠 기업이 밴쿠버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 배경과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방문하게 되었음
- (팀 필드 CEO) 전세계에 1억 8,000만명의 이용자가 카밤의 게임을 하고 있으며 북한과 이란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한국에서와 동일한 게임을 즐기고 있음
 - 특히, 미국, 멕시코, EU,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브라질이 큰 시장임
 - 1년에 300만 달러를 게임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지금도 5개의 게임을 개발 중에 있음
- (팀 필드 CEO) 밴쿠버는 테크,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며, 특히 카밤은 북미 대륙의 서부 해안가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표준으로서 몇 가지 진취적인 도전들을 하고 있음
 - 우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인데 우리는 스스로 회사를 집,

- 직원은 가족에 비유하면서 직원들이 아이들과 같은 자유로운 복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하며, 직원 4명 중 1명은 박사 학위 소지자임
- 카밤은 게임용 가상상품으로만 10억 달러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음
 -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여러 여건을 제공하고 있는데 EU, 미국, 한국, 일본, 중국으로부터의 이민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매우 매력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함
- o (고삼석 위원) 한국 게임기업인 넷마블에 인수되어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넷마블과의 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o (팀 필드 CEO) 카밤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창의와 창조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디즈니, 마블 등과 거래를 하고 있음
- 넷마블도 한국에서의 사업, 캐나다에서의 사업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의 비즈니스를 함께하는 파트너임
 - 넷마블이 인수한 이후 3개 제품을 출시했으며 AI 분야에서 협력하여 더 좋은 게임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o (신영규 과장) 밴쿠버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없고 사업하기 좋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캐나다 정부의 규제 중 사업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는지?
- o (팀 필드 CEO) 1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제외하고 세금, 근로 등의 분야에서 정부의 중요한 통제가 없음
- o (이기훈 비서관) 각 국가별로 규제가 상이함에 따라 지역에 맞게 서비스를 특화하여 제공하는지?
- o (팀 필드 CEO) EU에는 GDPR이라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있고,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어를 지원해야 하는 규제, 미국에는 COPPA라는 어린이 개인정보보호 규제 그리고 중국에는 검열, 채팅 필터링과 같은 다양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지 로펌 및 지역 정치인들과 협력하고 있음

- o (고삼석 위원) 마블과 같이 어린이 캐릭터를 가지고 성인용 게임 만드는데 문화적, 기술적인 부분 외에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 o (팀 필드 CEO) 예술과 과학 분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과학 분야는 엔지니어링, 프로그래밍, 전세계에 모든 스마트폰에서의 업데이트, 온라인에서 여러 이용자가 함께 게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또한 AI, 머신 러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이용자가 기분이 나쁜 경우에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게임 환경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내부에 박사급 인력이 다수 포함된 빅데이터 전문가 팀이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음
- o (고삼석 위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제약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규제에 대응하고 있는지?
- o (팀 필드 CEO)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수집하지 않고 있으며, GDPR 같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음
 - AI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각국의 규제는 이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정보만 활용하고 있음

5. 실리콘밸리 한국혁신센터 (KIC) 방문

□ 개 요

- 일 시 : '18. 6. 20.(수) 16:00~17:00
- 장 소 : 실리콘밸리 한국혁신센터 (새너제이)
- 면담자 : 이헌수 센터장

< 실리콘밸리 한국혁신센터 현황 >

□ 개 요

- 경제혁신 및 스타트업 기업의 지원을 전담할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미국 혁신생태계와 연계한 기업가 육성프로그램 운영과 글로벌 경제혁신을 위해 한국 혁신센터(KIC) 설립

□ 역 할

- 국내 유망 강소기업의 현지 사업 개발 및 투자 유치 지원
- 과학기술 R&D 산출물의 최적화와 현지화 및 글로벌 사업화
- 현지 사업 생태계 구축 및 국내 유관기업 협력을 통한 연계사업 지원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인재양성

□ 주요 프로그램

- TRT(Technology Revolution Together) 프로젝트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요소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리콘밸리 네트워크 확보, 투자유치 기회를 비롯한 각종 사업 협력 진행
- KIC Soaring
 - 혁신적인 기술력과 사업적 잠재력을 가진 강소기업(SME)이 성공적으로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 1:1멘토링을 통해 비즈니스 개발, 시장검증, 투자자 소개 등 지원
- Beyond Soaring
 - 미국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현지 전문가 1:1 메토링을 통한 고객사 발굴, 투자 유치, SW현지화 지원 및 수요 충족형 마케팅 등 현지 맞춤형 지원

< 방문 사진자료 >



< 회의 사진 >



< 방문 사진 >

□ 주요 논의내용

- (이헌수 센터장) 지원 기업을 선발하기 위한 심사를 기술 분야와 사업 분야로 나누어서 각각 30점, 70점의 배점을 부여하여 진행
 - 총 3단계의 절차가 있는데 2015년 5월부터 현재까지 지원한 국내 170개 기업 중 3단계를 통과한 기업은 12개이며, 이들 기업의 투자 유치 또는 매출이 5,200만 달러를 돌파하였음
 - 특히 작년의 경우, 투자보다 매출 규모가 많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음
- (이헌수 센터장) ‘테크놀로지 레볼루션 투게더 (TRT)’라는 이름으로 AR/VR, 하드웨어 등 8개 분야에서 기술을 이끌고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국내 기업들에 기술적 지원 등을 받고 있음
 - 예를 들어, 작년에 페이스북의 도움을 받았는데 전체 10주 프로그램 중 2주는 페이스북 엔지니어링팀이 AR/VR 관련 사업 분야에 대한 엑셀러레이션 과정을 운영을 해주고 나머지 8주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KIC에서 기술 분야에 대한 엑셀러레이션 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임

- 페이스북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페이스북이 M&A Pool, 공급 사슬 Pool, CVC Pool 이 세 가지를 지원하는데 글로벌 기업의 이 Pool에 국내 강소기업을 진입시키는 것이 목표임
- o (고삼석 위원) 실리콘밸리에서는 어떤 분야에 자본이 집중되고 있는지?
- o (이현수 센터장)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VR/AR 콘텐츠 등의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음
- o (고삼석 위원) 혁신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o (이현수 센터장) 실리콘밸리에서 AI, 빅데이터 기술은 이미 완성 단계에 있는데 여기에서 굳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존은 클라우드, 페이스북은 AR/VR, 구글은 AI 분야에서 예전부터 자기가 하던 연구를 그 연장선에서 인사이트를 가지고 해 왔기 때문임
- 이러한 기술을 융합하여 울컨넥티드 서비스를 제공하면 IoT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인공지능을 더하면 되는 것인데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이 굉장히 성숙해 있음
- TRT 프로그램은 아마존을 이겨보자, 우리보다 더 잘하는 기업에서 그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지 들여다 보자, 니치 마켓을 보고 다음 활동을 준비하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음
- 아마존은 5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국내 기업은 아직 못미치는 부분이 있음
- 글로벌 기업에 업혀가는 전략이라도 있으면 다음 단계에서 도약할 수 있을텐데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선도기업은 점점 경쟁력이 강화되면 다른 기업과 격차가 벌어지고 선도 기업의 독점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이 문제임

-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에 비해 ICT 서비스 산업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임
- o (고삼석 위원) 한국과 미국의 상황을 비교하여 큰 틀에서 큰 흐름을 보고 싶었고, 혁신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출장을 계획하였음
- 해외와 비교했을 때 핀테크, 우버 등 규제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이슈들이 많이 있으며, 특히 기술력 부족의 문제보다는 이해관계자간의 의견 조정이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함
- o (고삼석 위원) 캐나다 밴쿠버에서도 느낀 것이지만 사업을 하는데 규제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던데 미국에서는 드론에 대한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나 규제가 존재하는지?
- 국토안보와 관련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제가 없음

6. 실리콘밸리 무역관 (KOTRA) 방문

□ 개 요

- 일 시 : '18. 6. 20.(수) 17:00~18:00
- 장 소 : 실리콘밸리 무역관 (새너제이)
- 면담자 : 이지형 무역관장, 채희광 부관장

< 실리콘밸리 무역관 현황 >

□ 주요현황

- 설립 : 1998년
- 면적 : 1,578m², 60개실
- 주요업무 : 투자유치, 수출상담, IT지원센터 운영
- 직원 수 : 22명

□ 개요

- (설립)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분야 우수자원 (인력, 기술, 벤처 기업 등)의 해외 진출 강화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위해 1998년 설립되어, 2008년부터 해외마케팅 일원화 조치에 의해 KOTRA로 운영 이관
- (목적) 한국상품 수입을 희망하는 개별바이어의 방한을 유도하거나 구매단을 구성·방한토록 하여 국내 업계와의 수출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내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바이어와 수출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개별 방한 바이어 및 구매상담회 참가 바이어 유치
- (수행업무)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주요 수행 업무
 - 국내 중소기업의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 지원(해외 판로 개척활동 등)
 - 현지의 IT, 반도체장비, 소프트웨어 분야 국내 투자유치
 - 시장개척단, 전시회 참가, 해외마케팅지원 활동
 - 국내 공장설립 및 R&D센터 유치 등 투자유치 활동
 - 한국상품 수입 원하는 개별 바이어 유치
 - 수출상담 주선, 수출거래선 발굴, 통역 및 방문활동 지원
 - 한국제품 홍보, 해외시장 조사 대행 등

< 방문 사진자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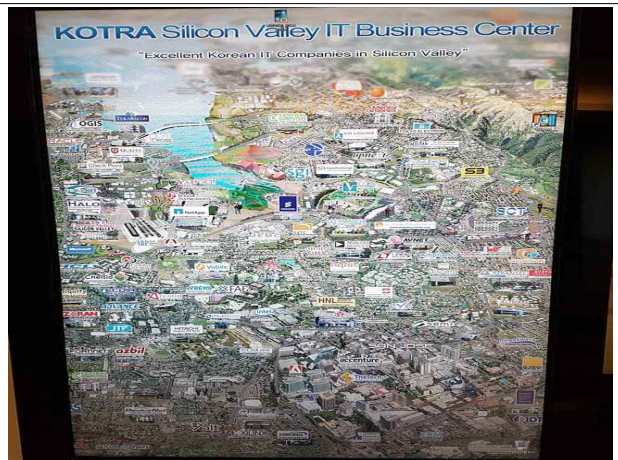
< 방문 사진 1 >



< 방문 사진 2 >



< 기념 촬영 >



< 실리콘밸리 IT 기업 지도 >

□ 주요 논의내용

- (이지형 관장) 대학과 MOU를 체결하여 기업 창업을 위한 실리콘밸리의 목소리 직접 들려주고 7곳의 회의실을 운영하고 있음
- (고삼석 위원) 한국에서는 우수한 자원이 정부 등 공공분야를 선호하는 상황이므로 범정부 차원의 창업대책을 마련중에 있음
 - 현정부가 일자리 정부이다 보니 그 연장선에서 창업지원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하고 있음
- (이지형 관장)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 바로 창업하는 것은 쉽지 않음

- 실리콘밸리는 벤처캐피털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벤처캐피털이 창업 1단계 스타트업보다는 2, 3, 4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데 국내에서 오는 기업은 대부분 1단계임
- 따라서 검증된 한국의 대표선수를 뽑아서 투자를 받게 하는 전략이 현실성이 있음
- 한국계 벤처캐피털 중에서 한국 기업 투장에 관심이 있는 곳들이 있는데 이들과 한국 기업을 잘 연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벤처캐피털과 연계하여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조기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스타트업 성공의 핵심은 벤처캐피털과 공간인데, 실리콘밸리는 이 두 가지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생태계가 조성되었음
- o (이지형 관장)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이 55개 있는데 자율주행이나 AI를 하려는 중소기업들이 KOTRA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통해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 o (고삼석 위원) 작년말 베이징 KIC를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의 배달의 민족을 모방한 중국 기업의 가치가 5조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음
- 한국에서 힘들게 사업을 시작해도 중국에서는 이를 모방해서 바로 큰 사업을 만들어 버리는데 내수시장만 생각하는 국내 기업으로서는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o (이지형 관장) 과거 해외 M&A를 강조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음
- 같은 맥락에서 한국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식은 많은데 ‘So What’이라고 질문을 하면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잘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실리콘밸리에는 스타트업 테크가 약 10만개 정도라고 하는데 큰 기업이거나 큰 기업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창업한 기업들이 대부분임
- 또한 주변에 스탠포드나 버클리 같은 명문대가 있어서 고급 자원이 계속 공급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인도 학생들이 유학을 많이 오는데 테크 자이언트에서 근무를 하는 인도 선배가 1.5억원~2억원 정도로 인도 후배를 신입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음. 분야에서 조금만 알려지며 모두 스카우트 해 감
- o (신영규 과장) 한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담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한국에서 진출한 기업과 실리콘밸리 현지 기업 간 교류가 별로 없고, 벤처캐피털이 투자를 해야 하는데 한국 기업에 잘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임
 -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과 인력이며 글로벌 자동차 회사만 보더라도 벤츠, BMW는 이곳에서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 중국의 니도라는 전기차 회사가 있는데 테슬라, 포드에서 일하던 인력을 스카우트 해서 연구하고 있음. 전기차 분야는 테슬라를 제외하고 중국계가 주(6~7개)를 이루고 있음
- o (채희광 부관장) 자금력이 되는 한국 대기업이 이곳의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국내 분위기로는 쉽지 않은 상황임
 -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하여 IPO까지 연결하는 방법으로 시장으로 나가는 창구 역할이 필요함

7. 실리콘밸리 K-Group 간담회

□ 개 요

- 일 시 : '18. 6. 21.(목) 11:30~13:30
- 장 소 : 중식당 (새너제이)
- 면담자 : K-Group 이홍래 회장, 황장석 IT전문 기자, 손재권 매일경제 특파원

< 실리콘밸리 K-Group 현황 >

□ 개 요

- 실리콘밸리 K Group은 실리콘밸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이테크 관련 한국계 전문직들의 자발적 커뮤니티 모임으로 2015년 10월 1일 기준 3,400명의 회원을 보유함

【 주요현황 】

구 분	내 용
조직형태	커뮤니티 모임
설립연도	2007년
회원수	3,400명
운영방식	정기 (모든 회원 대상), 비정기 (소그룹 모임)
활동내역	정기총회, 소그룹모임, 한국 및 미국 기업의 리크루팅 모임, 전문가 초빙 토의모임, 한국 기술단체 및 정부산하 단체와 조인트 세미나

- (설립목적) 한국계 전문가들 상호간의 교류를 보다 더 실질적으로 이루고 전문 분야의 정보와 인적 정보 공유 및 네트워킹 활성화
- (회원구성) 실리콘 벨리에 소재한 다양한 하이테크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창업 활동을 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이 지역에서 관련 석박사 학위 과정 중인 학생
 - (분야) 소프트웨어, IT, 반도체, 광학, 클린테크, 스타트업
- (소그룹모임) 분야별로 웹이나 IT,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OS와 임베디드, 칩 디자인 등 전문 분야에 따라 내부 그룹 운영
 - 전자기기, 재료, 기계구조를 연구하는 모임부터 바이오, 제품 기획, UX 등 갖가지 분야에서 IT 관련 업무를 하는 전문가들이 활동함

< 간담회 사진자료 >



< 간담회 사진 >



< 기념 촬영 >

8. 삼성리서치아메리카[SRA] 방문

□ 개 요

- 일 시 : '18. 6. 21.(목) 14:00~16:00
- 장 소 :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 회의실 (새너제이)
- 면담자 : 이준현 법인장, 하재욱 부장, 김도영 수석, 고광현 수석, 박성지 매니저

< 삼성리서치아메리카 현황 >

□ 개요

- 위치 : 美 California州 Mountain View 소재
- 연혁
 - 1988年 산호세 지역에 SISA 설립
 - 북미지역 PC, 모니터 판매 및 기술 연구 수행
 - 2014年 법인명 변경(Samsung Research America)
 - 2015年 SRA 마운틴 뷰 사옥으로 이전 (2月)

□ 주요 연구 분야

- AI, Convergence, Computer Vision 等 선행 SW 및 신개념 제품, 차세대 UX(User eXperience)
- RF 및 통신/Multimedia 표준화 等 거점 강점기술
- 사업부向 선행기술 개발 및Open Innovation 수행
 - B2B기술(Pay, KNOX, Health), VR/AR, TV 화질 및 Data/Audio, Google협력, 벤처 발굴, 트렌드 센싱 등

< 방문 사진자료 >



< 회의 장면 1 >



< 회의 장면 2 >



< 기념 촬영 >



< 환영 화면 >



< 회사 전경 1 >



< 회사 전경 2 >

□ 주요 논의내용

[투자 동향]

- (삼성전자) 현재 실리콘밸리에서는 가상현실, 로봇 (배달, 물류), 스마트 스피커 (음성, 영상), 자율자동차, 블록체인, 저개발 국가에 기구·드론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임
- (삼성전자) 전 세계에서 벤처투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며, 그중 절반 가량이 실리콘밸리에서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
 - 투자 금액은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거래건수는 2015년 이후 감소하였는데 이는 초기 단계의 소규모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임
- (삼성전자) 2017년 투자 금액 순으로 보면, 1) 인공지능, 2) 디지털헬스, 3) 핀테크, 4) 로봇, 5) 가상현실(AR/VR), 6)스마트홈 순임
 - 인공지능 중에서는 유전자 분석, 자율주행, 부동산, 산업 IoT, 웨어러블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었으며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딥러닝을 이용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임
- (고삼석 위원) 한국에서는 원격의료, 의료정보 관리 등이 대표적으로 규제혁신이 필요한 분야로 지적받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 분야의 규제 이슈가 있는지?
- (삼성전자) 미국에서는 의료기기에 대한 FDA 승인, 의료정보에 대한 HIPPA Compliance 준수가 있음
 - SRA는 삼성 내에서 최초로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 북미에서 원격의료 서비스 (B2B)를 하고 있고, 카이저 퍼머넌트 병원 등과 협력하여 심장병 재활 시범서비스 중임

- 한국에서는 규제로 인해 아직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규제가 완화되면 북미에서의 경험을 한국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o (고삼석 위원) 디지털헬스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지?
 - 애플은 와치를 통해 실험하고 이를 현장에서 확산하는 전략이며, 구글은 환자 데이터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는 병원과의 특정 질병관리 프로세스를 같이 개발하여 적용
 - 구글 등이 보유한 환자 데이터 표준화·이용 등에서의 강점을 추적하기 위하여 대비책을 고민 중에 있음

[기술 동향]

- o (삼성전자)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1986년 마빈 민스키 교수의 Neural Network로는 훈련이 불가능하다는 논문이 발표된 이후 미국 NSF의 연구지원이 중단된 반면 캐나다는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토론토 대학 등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연구에서 성과를 이룸
 - 미국은 막대한 투자를 통해 격차를 거의 따라 잡은 상황이며, 최근에는 기존 자료 분석을 넘어 저해상도를 고해상도로 생성하는 Generative AI, 의사결정을 위해 논리적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Explainable AI 분야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o (고삼석 위원) 삼성내 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비스인 빅스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계획인지?
- o (삼성전자) 향후 데이터 유입이 음성인식을 통해 이뤄질 것이므로 포기할 수 없는 분야이므로 보다 사람처럼 대화하는 기술개발을 위해 영국, 미국 연구소에서 선행 연구를 수행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 빅스티 2.0에서 많이 개선될 예정임

- (고삼석 위원)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시기는 어떻게 예상하는지?
- (삼성전자) SRA가 직접 자율주행 연구를 수행하지는 않으나 자율주행 기술이 인간에 비해 사고율이 낮은 상태는 이미 달성되었고 기술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다만, 최근 테슬라의 두 번의 사고에 의해 규제 강화 이슈가 있으며 완전 자율주행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나 제한된 지역에서 자율주행 3~4단계 상용화는 멀지 않았다고 판단됨
- (삼성전자) 증강현실 분야는 포켓몬 출시 이후 많은 관심이 있으며 다양한 시도가 있으나 결국 안경 형태로 갈 것으로 예상함
 - 3D TV 이용 시 소비자가 안경 착용을 불편해했던 경험과 아직까지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응용분야가 나타나지 않아 많은 회사들이 고민하는 상황임
- (삼성전자) 로봇이 가정용으로 응용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이동성을 갖춘 로봇 대화가 가능한 AI 기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현재까지 한계가 있으나 보안, 배달, 물류 로봇과 같이 인간 대체가 쉽고 효율적인 분야에서는 적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 (삼성전자) 스페이스X는 발사체 재활용을 위해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인공위성 12,000개를 쏘아 올려 전 세계에 인터넷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구글, 페이스북 등도 고객층 확대를 위해 유사 계획을 발표·추진 중
- (삼성전자) SRA는 TV, 휴대폰 등 완제품을 만드는 세트부문의 선행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소로 달라스에는 통신을 담당하는 연구 부문이 있으며 직원은 800여명 규모로 평상 시 한국 본사에서 온 출장자를 포함하면 1,000여명이 근무 중

- 주로 AI/Personal Assistants, 지불 플랫폼, 보안 및 인증, 오디오, AR/VR, 차세대 통신, 디지털 헬스 솔루션, 스마트홈, IoT 분야에서의 선행 연구를 진행 중임
- 인공지능 인력 확보와 빠른 기술개발 진행을 위해 최근 토론토 지역에 인공지능 연구소를 개소하였으며, 모든 기술의 자체 개발이 목표가 아니라 리시치를 바탕으로 기술 확보를 우선적으로 진행

Ⅲ. 총평 및 시사점

- 아마존은 커머스 기업에서 시작하여 콘텐츠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였는데 아마존 프라임 회원에 가입하면 콘텐츠 무료이용, 상품 무료배송 등 연회비 119달러의 5배 이상의 효용을 얻을 수 있음
- 이러한 아마존은 고객에게 강박적일 정도로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혁신을 연구하고 있으며, 고객을 위한 실험이라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장려하는 기업 문화를 지님
- 아마존과 국내 게임기업 넷마블이 인수한 게임기업 카툰 모두 신규 서비스를 개발할 때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 고객의 취향에 맞는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음
 - 다만 EU GDPR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 강화에 따른 부담이 있어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지역별, 국가별, 인종별 이용자의 취향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차기 제품을 개발
- SRA는 기술개발 연구소이지만 단순히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M&A 등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는 일을 담당
 - 자본의 속성을 이해하고 대기업이 하는 M&A를 유연하게 받아줄 필요가 있으며, M&A가 활성화될 경우 스타트업의 시장 출구전략이 마련됨으로써 ICT 분야에 자본이 유입될 수 있음
- 실리콘밸리의 주요 유망기술로는 AI, 빅데이터, AR/VR, 로봇, 디지털 헬스가 있으며, 실리콘밸리와 밴쿠버 모두 계속해서 일자리가 생겨나서 사람이 부족할 정도로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음

IV.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2018년 6월 17일(일)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제공일 : 2018.6.17.(일)
---	---	---

문의 : 고삼석 상임위원실 이기훈 비서관(☎2110-1243, khlee35@korea.kr)

고삼석 상임위원, 혁신성장 및 방송통신 규제 관련 캐나다·미국 ICT 기업 및 산업현장 방문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상임위원은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CKC* 2018 행사 참석과 글로벌 ICT 산업현장에서 혁신성장과 방송통신 분야 규제동향 파악을 위해 캐나다 밴쿠버**와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한다. 이번 출장은 문재인정부 2년차를 맞아 혁신성장의 가시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본격화 되는 시점에 미디어 및 ICT 분야의 신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효과적인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 CKC (Canada-Korea Conference on Science & Technology) : 한국-캐나다 간 과학 기술분야 최대 학술교류 행사로 금년에는 개최 도시인 밴쿠버의 특성을 살려 '제4차 산업혁명'을 메인 주제로 선정

** 밴쿠버는 최근 기업에 대한 주(州)정부의 각종 제도적 지원 아래 '제2의 실리콘밸리'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가상현실(VR)·컴퓨터그래픽(CG) 분야 디지털 미디어 기업을 유치하여 캐나다의 대표적인 미디어·ICT 산업도시로 발전하고 있음

고삼석 위원은 밴쿠버에서 개최되는 CKC 2018 행사에 참가하여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차세대 프로그램(Young Generation Program) 등에 참석하여 현지에서 유학중인 차세대 인재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또한 행사 기간 중 글로벌 혁신기업인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밴쿠버 지사를 방문하여 최신 산업동향을 파악하고 주정부의 지원정책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실리콘밸리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과 한국혁신센터(KIC), 삼성리서치아메리카(SRA)를 방문하고, 한인 개발자 모임인 K-그룹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서비스 및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규제혁신과 미디어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격의없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끝.